

육계 생산비 절감 방안

사료가 시대의 육계 사료비 절감 방안

지난해 이후 사료용 원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료업계와 축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은 전 세계 곡물 수입국들을 거의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가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입 원료 가격의 폭등은 앞으로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은 물론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올해 또한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



이 우 선
대주산업 고객지원팀

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생산비 압박현상이 더욱 거세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사료회사는 물론 농민들의 경영수지 악화와 가축의 사육두수 감축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업계의 자조금 사업이나 정부 보조금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축

산업과 사료산업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규모를 통해 적절한 축산물 가격을 유지해 나가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육계 생산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간 그 비용이 줄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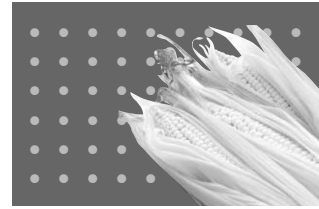
<표 1> 주요원료 가격동향

(단위 : US\$/톤)

| 구분 | 2006 평균 (A) | 2007. 3 (B) | 2007. 6 (C) | 2007. 12 (D) | 상승률(%) | | |
|-----|----------------|----------------|----------------|-----------------|--------|-------|-------|
| | | | | | D/A | D/B | D/C |
| 옥수수 | 143.6 | 289.9 | 210.3 | 296.9 | 206.8 | 102.4 | 141.2 |
| 소맥 | 140.2 | 200.6 | 207.8 | 420.0 | 299.6 | 209.4 | 202.1 |
| 대두박 | 229.5 | 245.4 | 248.4 | 455.6 | 198.5 | 185.7 | 183.4 |
| 밀기울 | 125.2 | 148.9 | 177.2 | 209.8 | 167.6 | 140.9 | 118.4 |
| 채종박 | 143.3 | 147.6 | 156.0 | 292.2 | 203.8 | 197.8 | 187.3 |

<표 2> 해상운임 동향

| 구분 | | 2006. 6 (A) | 2006. 12 (B) | 2007. 6 (C) | 2007. 12 (D) | 증감(%) | |
|----------------|------|----------------|-----------------|----------------|-----------------|-------|-------|
| | | | | | | D/B | D/C |
| 해상운임 (\$/톤) | PNW | 28.9 | 39.8 | 44.5 | 91.0 | 228.6 | 204.5 |
| | GULF | 32.6 | 52.6 | 70.1 | 115.4 | 298.5 | 164.6 |



〈표 3〉 연도별 육계 생산비 변화 동향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생산비 | 1,098 | 1,088 | 1,199 | 1,080 | 959 | 1,052 | 1,010 | 1,003 | 1,085 | 1,008 | 1,001 |

것을 볼 수 있다. 육계/kg당 생산비가 1996년 1,098원에서 2006년 1,001원이었으며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생산비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열화 사

업추진에 따른 정부와 계열주체 및 농가가 생산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다.

2006년 육계 생산비 비목별 구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치는 가축비 30.1%,

〈표 4〉 2006년 사육규모에 따른 비목별 생산비 구성요소

(단위: 원)

| 육계 생체 10kg당 생산비 | 10,000수 미만 | 10,000~19,999 | 20,000~29,999 | 30,000수 이상 | 평균 |
|------------------|---------------|---------------|---------------|--------------|---------------|
| 가축비 | 3,120 | 2,978 | 3,044 | 2,807 | 2,876 |
| 사료비 | 4,789 | 5,095 | 5,070 | 5,103 | 5,063 |
| 수도광열비 | 422 | 391 | 592 | 441 | 460 |
| 방역치료비 | 287 | 316 | 336 | 307 | 311 |
| 수선비 | 19 | 10 | 43 | 32 | 30 |
| (건물) | 10 | 5 | 15 | 21 | 17 |
| (대농구) | 9 | 5 | 28 | 11 | 13 |
| 소농구비 | 2 | 1 | 1 | 3 | 2 |
| 제재료비 | 154 | 140 | 145 | 113 | 124 |
| 차입금이자 | 69 | 54 | 54 | 85 | 75 |
| 임차료 | 27 | 29 | 24 | 13 | 17 |
| 고용노력비 | 129 | 95 | 173 | 136 | 136 |
| 기타잡비 | 27 | 39 | 33 | 27 | 30 |
| 상각비 | 474 | 446 | 453 | 421 | 430 |
| (건물) | 182 | 214 | 216 | 190 | 196 |
| (대농구) | 292 | 232 | 237 | 231 | 234 |
| 소계(A) | 9,519 | 9,594 | 9,968 | 9,488 | 9,554 |
| 자가노력비 | 426 | 491 | 358 | 387 | 395 |
| 고정자본이자 | 27 | 21 | 33 | 27 | 27 |
| 유동자본이자 | 52 | 50 | 57 | 50 | 51 |
| 토지자본이자 | 9 | 6 | 4 | 3 | 4 |
| 비용합계(B) | 10,033 | 10,162 | 10,420 | 9,955 | 10,031 |
| 부산물수입(C) | 20 | 29 | 39 | 12 | 19 |
| 경영비(A-C) | 9,499 | 9,565 | 9,929 | 9,476 | 9,535 |
| 생산비(B-C) | 10,013 | 10,133 | 10,381 | 9,943 | 10,012 |
| 판매시체중(kg) | 1.53 | 1.45 | 1.46 | 1.33 | 1.38 |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가 시대의 육계 사료비 절감 방안



사료비 53.0%, 자가노력비 3.9%로써 생산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은 육계 생산원가 절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료원료는 광물질 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 물품에 의존하고 있어 사료가격의 인상은 현시점에서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사료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육계생산의 가장 값비싼 자원은 사료이다. 육계가 사료허실 없이 실제 섭취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수당 적정급이 길

이는 최소 3.0~5.0cm가 적당하며 각 해당 일령의 표준 사료섭취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정상 계군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온·습도 관리의 중요성

육계의 정상체온은 41℃이다. 환경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닭은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환경온도가 12℃ 이하일 때는 저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고온 및 저온은 닭의 정상성장을 방해한다.

닭은 기본적으로 개구호흡을 통해 체온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즉 닭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준보다 덥거나 추울 경우에는 성장하는데 소비되어야 할 에너지가 추울 때는 몸을 덥게 하는데 사용을 하고 더울 때는 호흡을 빨리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습도의 경우는 상대습도 60~70% 정도가 적당하며 70% 이상의 습도에서는 개구호흡을 통한 체온조절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너무 낮은 상대습도의 경우 그만큼 계사 내 온도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더 들게 된다.

입추당일부터 계사내 온도는 30~33℃를 맞춰주고 상대습도는 최소 60% 이상은 맞춰줘야 한다.



2. 점등과 조도

개방계사의 경우 점등은 야간에만 간헐점등으로 하지만 무창계사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점등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다.

점등프로그램의 경우는 각 농가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조도의 경우 입추 시 최소 90Lux 이상은 맞춰야 급이, 급수가 용이하며 층아리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일령이 지날수록 조도를 낮춰주는데 이는 계군의 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사료와 물을 섭취하게 하기 위함으로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3. 급수

물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영양소이다보니 자칫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육계에 있어 최적의 물의 온도는



는 10~12℃이며 급수가 중단되어 체내 수분이 10% 탈수가 되면 증체에 지장이 오며 20% 이상 탈수가 될 경우 폐사하게 된다.

수질검사와 음수 공급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청결유지가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수질검사는 물의 품질 변동이 적은 겨울철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육계를 키워본 축주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음수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계군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만큼 음수량 체크는 농가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계군관리의 첫걸음이다.

4. 쥐에 의한 사료낭비

지대사료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무포장 사료로 빈으로 직접 옮겨지면서 쥐에 의한 사료손실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위해요소이다. 대낮에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걸 봤다면 그 농장에는 이미 500마리 정도의 쥐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한다. 쥐 한 마리는 하루에 15~30g의 사료를 먹거나 못쓰게 만든다.

5. 사료 품질에 의한 사료낭비

사료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에서 사료비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사료품질을 높여 사료요구율

사료가 시대의 육계 사료비 절감 방안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키우던 습관보다는 실증자료를 통한 여러 가지 농가 환경조절 프로그램과 사료회사 측의 컨설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스스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을 낮추는 것이 사료비 절감에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료품질은 출하일령이 짧은 육계의 경우 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사육기간 동안 사료품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균일도가 저하되며 결국 단위 증체당 사료효율이 저하되어 사료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제는 단순한 CP(단백질)함량만을 따지기 이전에 원종별 표준함량과 에너지가 등을 축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저렴한 사료나 무조건적인 고가 사료를 고집하는 것은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사료도 문제이지만 너무 고사양의 사료는 사료비 인상만 가져 올 수 있다. 농가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료는 영양적 가치 못지 않게 신선한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결국은 농장주의 사양관리 능력이야말로 사료비 절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

닌가 싶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관리 수칙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를 행하는 능력이 농가 생산비 절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의 병아리와 좋은 사료를 공급하더라도 육추시 관리 소홀 및 환경조건을 못 맞춰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키우던 습관보다는 실증자료를 통한 여러 가지 농가 환경조절 프로그램과 사료회사 측의 컨설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스스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IMF이후 농가 최대의 위기가 온 것 같다. 치솟는 사료비에 막연하게 정부나 관련단체에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아 보자. 